

완도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3관왕 등극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 대상' 최우수상 수상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 개관 등 해양치유산업 선도 높이 평가

완도군은 지난 22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송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완도군은 '2023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에서 2년 연속 K-웰니스 브랜드 대상(해양치유 분야), 'K-브랜드 어워즈'에서도 해양치유 분야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수상으로 '해양치유' 분야만 3관왕을 차지했다.

올해 처음 개최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기관의 사기 진작과 지방자치 발전 기여를 목표로 마련됐다.

완도군은 저출산, 인구 유출로 지자체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 생존 전략 산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역점 추진 중이다.

해양치유는 청정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으로 완도군은 9년 전부터 관련 사업을 육성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하며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현재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해양기후와 해양문화치유센터, 약산 해안치유의 숲, 청산 해양치유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을 운영하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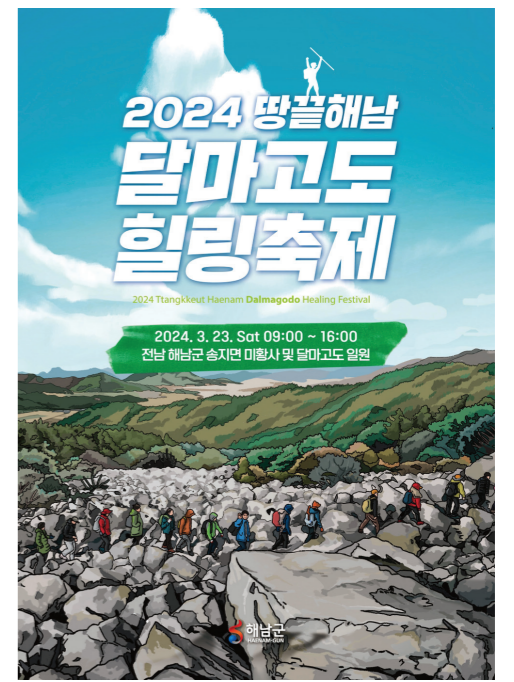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센터 개관까지



없이 많았던 여정이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수상의 영예까지 안게 됐다"면서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한 완도만의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군이 해양치유의 중

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웰니스 해양 관광도시로 도약해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완도=송준표 기자



'한국의 산티아고' 팥끝 해남 달마고도에서 힐링하세요~ 달마고도 축제 내달 23일 개최

"팥끝에서 시작되는 한반도의 봄 기운을 즐겨보자"

해남군은 다음달 23일 '2024 팥끝해남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자연 그대로의 힐링, 달마고도'라는 테마로 팥끝생태가 그대로 살아있는 달마고도만의 정취를 담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힐링축제로 마련된다.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리화용품과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달마고도 자체를 즐기는 노르딕워킹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축제는 신록이 물들기 시작하는 수려한 달마고도 걷기행사를 시작으로, 숲속 음악회, 버스킹 공연, 해남 특산물을 판매하는 달마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씨앗을 품은 친환경 종이 비행기를 날려 새봄을 시작하며, 참가자들이 달마고도 곳곳에 나무를 심는 식목일 기념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달마고도는 해남군 달마산 17.74km를 감아도는 둘레길로, 팥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황사와 수천개의 바위들이 쏟아져 내린 너털, 다도해 한눈에 보이는 전망 등으로 최고의 명품길로 꼽히고 있다.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순수 인력만으로 만들어 가장 걷기 편하게 조성하는 한편 달마산 12암자를 잇는 옛길의 이야기를 담아 한국의 산티아고로 일컬어 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팥끝해남에서 아름다운 달마고도에서 몸과 마음의 힐링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며 "한국의 산티아고, 달마고도에서 열리는 축제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송준표 기자

'봄의 시작'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3월11일 개막

13일까지 고군면 회동리 일대...야간 콘텐츠 등 볼거리·즐거거리 풍성

진도군은 제44회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가 '봄의 시작, 신비의 바다에서'란 주제로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명예문화관광축제인 신비의바닷길축제는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한 바닷길 체험과 진도만의 민속과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군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형 야간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으로 축제를 준비했다.

특히 바닷길 햇빛 행진과 복합매체(멀티미디어) 레이저 구경거리(쇼)를 신규 개발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강화했다.

또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에 걸맞은 지역 고유의 민속문화 볼거리와 체험부스 등을 확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11일 개막식에는 진도 출신 국민가수 송가인씨가 특별 출연하고, 12일에는 전국노래자랑 녹화방송이 행사장 일원인 가계 특설무대에서 예정돼 있다.

또한 바닷길 만남 44세의 '견우와 직녀' 사랑의 선발대회와 뽕할머니 선발대회를 진행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더 알차고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만족할 만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축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주)팜스빌, 진균류 상용화 업무협약 체결

장흥군과 (주)팜스빌이 진균 소재의 산업화와 기업·연구기관의 상생을 위해 손을 잡았다.

군은 21일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균류 바이오·웰스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팜스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이병욱 (주)팜스빌 대표, 박승배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 이진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진균류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과 산업화, 공동연구 결과물 공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버섯을 포함한 진균류의 산업 소재 개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양측은 기대하고 있다.



(주)팜스빌은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서 건강식품브랜드마케팅, 마이크로바이옴과 천연물소재개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하고 있다.

팜스빌은 애플트리김약사네, 악마다이어트, 베타민스토리, 와이락 등 13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장흥=김도영 기자

강진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1기' 참가자 모집 시작

오는 3월 22일까지 한달간 접수...4월 22일부터 입주

강진군은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한달간 농촌에서 살아보기 1기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기간은 4월 22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2개월에서 최장 6개월간 농촌 생활, 일자리 체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습득 및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참가대상은 타 시 지역 거

주 도시민(만 18세 이상)이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작전 금강까지내마을과 읍전 임지마을 두 곳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진=김영일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